

원유시장 동향

오 세 신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ssoh@keei.re.kr)

1. 국제유가 동향 및 분석

가. 국제유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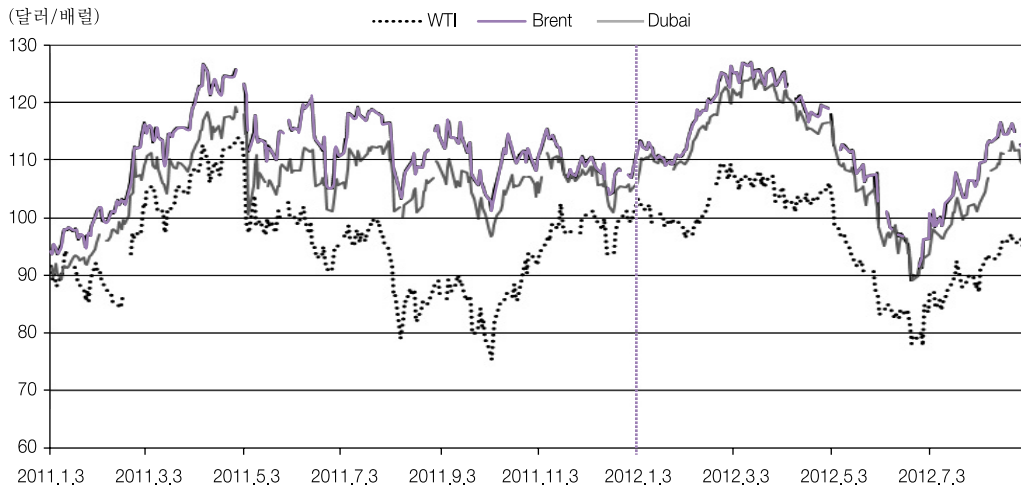
유로존 경기침체와 신흥경제국들의 경기둔화 영향으로 세계 석유수요가 위축되면서 석유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3분기 들어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2분기에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과 스페인의 디폴트 우려로 국제유가가 한 달여 만에 20달러 가까이 하락하는 등 급락세가 나타났던 것과는 달리, 3분기에는 유럽연합(EU)의 유로존에 대한 금융지원 약속으로 유로존 경기침체에 대한 시장 우려가 희석됨에 따라, 이란 핵문제와 시리아 사태 등 지정학적 요인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유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특히 이란 핵문제는 3분기부터 미국과 유럽연합의 이란 원유거래에 대한 제재 이행으로, 이란 원유수출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져 석유시장에 미친 상승압력도 배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두바이 원유가를 기준으로 국제유가의 최근 흐름을 살펴보면, 6월 말에 배럴당 90달러 수준을 나타내던 두바이 원유가는 이란 원유거래 재제가 발효된 7월

들어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7월 초 90~94달러대에서 등락을 거듭하였으며 7월 말까지 100달러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8월 들어 이란 핵협상의 교착상태로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에 나서고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공격을 언급하면서 국제유가의 상승세도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두바이 원유가는 8월 7일에 배럴당 105달러를 돌파하였고 8월 중순인 16일에는 110달러대로 상승하였다. 이 기간 시리아 내전에서 사상자가 늘어나고 정부군의 생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내전이 격화되면서, 서방국가들의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지정학적 불안을 가중시키며 유가 상승을 추가 견인하였다.

8월 하순이 다가오면서 국제유가는 추가 상승에 버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유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또 다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란 핵협상의 향방이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이견차로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국제유가에 대한 상승압력도 동시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된 요인 간의 줄다리기 게임(Tug of war)이 팽팽하게 진행됨에 따라, 8월 중순 이후 국제유가는 매일 1달러 미만의 낮은 등락폭을 보이는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국제원유가 추이



〈표 1〉 2011~2012년 국제원유가 추이

(단위: 달러/배럴)

유종	2011					2012				
	1/4	2/4	3/4	4/4	평균	1/4	2/4	7월	8월	평균
두바이	100.84	110.34	106.95	105.69	105.98	116.38	106.19	99.08	108.58	109.32
브렌트	105.56	116.96	112.75	109.18	111.08	118.53	108.39	102.66	113.03	112.12
WTI	94.56	102.29	89.51	94.12	95.10	103.09	93.34	87.88	94.12	96.35

주: 2012년 평균은 8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석유공사

나. 유가 변동요인 분석

2012년 들어 8월 말 현재까지 국제유가는 석유시장의 수급상황과 다소 동떨어진 움직임을 보여 왔다. 석유시장의 공급과잉 상태가 매월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2분기 급락세를 보였던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배럴당 110달러대의 고유가 수준을 지속해 왔다. 세계에너지기구(IEA) 통계에 따르면 1분

기와 2분기에 세계 석유공급은 수요보다 각각 170만 b/d와 190만b/d 많은 것으로 나타나, 2012년 상반기에만 평균 180만b/d의 석유공급 초과 상황이 지속되었다. 지난해 연평균 40만b/d의 석유공급 부족이었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지난해 석유재고 감소분을 만회하고도 남은 정도의 석유공급 초과상황이 올해 상반기까지 나타난 셈이다. 또한 7월에도 세계 석유공급이 수요를 200만b/d나 초과한 것으로 Energy

Intelligence는 보고하고 있어, 지난해 하반기에 있었던 IEA 회원국들의 전략비축유 방출분 6천만배럴을 보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말부터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8월 말까지 두 달 간 배럴당 20달러 이상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세계 석유시장이 각종 금융기법 적용 등으로 확대되는 한편, 투자시장으로 각광을 받게 되면서 기초 수급상황보다는 심리적 기대감을 자극하는 사건·사고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사건과 사고는 모두 석유수요 및 공급과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벤트는 석유수급에 대한 우려 또는 기대감일 뿐 현실은 아니란 점에서 실질적인 수급상황과는 조금 다르다.

최근 석유시장의 투자심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유로존 경제불황 등에 따른 세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와 이란 핵문제 및 시리아 내전이 있다. 이 가운데 유로존 문제는 6월까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과 스페인의 구제금융신청 등으로 위기가 높아지며 국제 원유가를 두 달여 만에 배럴당 30달러 가까이 급락시킨 주된 요인이었다.

그러나 6월 말 이후 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경제 위기국들에 대해 유동성을 대폭 지원할 것을 발표하면서, 유로존 금융경색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었고 이로 인해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제동이 걸렸다. 여기에 더해 7월부터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국가들의 추가 제재조치로 이란의 원유수출이 급감하기 시작하면서 국제유가는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이후 8월 말까지 서방국가들의 이란에 대한 압박수위가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 시리아 내전의 격화로 주변국들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유가의 상

승세는 보다 가속화되었다.

그동안 국제유가의 하락압력으로 작용해온 유로 경제위기는 그리스의 연립정부 구성 실패에 따른 유로존 탈퇴 우려와 스페인의 국채금리 급등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그리스가 2차 총선에서 연립정부를 구성하며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이행 가능성을 높였고, 유럽연합이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을 합의하면서 유로존 붕괴 우려가 완화되었다. 게다가 EU가 유로 안정화기구(ESM) 창설을 통해 그리스와 스페인 등에 대한 구제금융과 유럽은행들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하고, 유럽중앙은행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매입을 통해 이들 국가들의 국채수익률과 독일 채권 수익률과의 스프레드 안정화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유로존의 금융경색도 일단은 해소되었으며 석유시장에서의 유동성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때문에 석유시장에서는 이러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지정학적 공급불안이 기폭제로 작용하면서 국제유가의 상승현상이 가능했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최근 지정학적 요인의 핵심인 이란 핵문제는 6월에 개최된 이란과 P5+1(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간 핵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장기화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이란산 원유거래 제재가 핵협상 결렬로 발효됨에 따라 이란의 원유수출은 7월 1일부터 120만b/d 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미국 대선이 열리는 11월 이전에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관측되면서 이란 관련한 지정학적 불안은 더욱 고조되었다. 여기에 8월 말 이란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간 핵협상이 또 다시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면

〈표 2〉 2012년 1~8월 주요 유가 변동요인

기간	변동요인
1월	• 미국, 이란 추가제재안을 포함하는 국방수권법 최종 승인 • EU,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 합의
2월	• 남수단, 수단과의 송유관 사용료 분쟁으로 석유생산(30만b/d) 중단 • 캐나다, 앨버타 오일샌드 설비고장으로 일부(11만b/d) 생산 중단 • 그리스, 구제금융 조건으로 구조조정에 대해 의회 합의 • EU,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1,300억 유로)에 합의
3월	• EU, 국제은행 간 전자결제 통신망(SWIFT)의 이란에 대한 서비스 중단 결정 • 이란, 핵협상 재개 요청 • 미국,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금지에 대한 예외대상 1차 발표(11개국) • 스페인, 국채금리(10년물) 5% 돌파
4월	• 이란 핵협상 개최(이스탄불) • 스페인, 국채금리(10년물) 6% 돌파 • IMF, 2012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3.3%→3.5%) • 중국, 제조업 6개월 연속 위축
5월	• 그리스, 1차 총선에서 연립정부 구성 실패 • 프랑스, 올랑드 사회당 후보 대통령 당선 • 미국, 씨웨이(Seaway) 송유관 전환 공사 완료 • 이란 핵협상 개최(바그다드) • 세계은행, 중국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8.4%→8.2%) • 스페인 경기침체 심화(실업률 24%)
6월	• 중국, 기준금리 인하(3.5%→3.25%) • OPEC 총회 개최 및 생산한도 동결(30,0백만b/d) • 그리스, 2차 총선 및 신민당과 사회당 연립정부 구성 • 스페인 국채금리(10년물) 7% 돌파, 이탈리아 국채금리(10년물)은 6% 돌파 •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 미국, 오퍼레이션트위스트 6개월 연장 • 이란 핵협상 개최(모스크바) • 미국, 이란중앙은행과의 거래금지에 대한 예외대상 발표(9개국)
7월	• 노르웨이, 석유노조 파업 • 미국, 이란 국방부 관련 15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해외 자산동결 • 스페인 국채금리(10년물) 7.5%로 사상 최고치 기록 • 유럽중앙은행(ECB), 국채매입 프로그램 발표 • 시리아, 내전 격화로 하루동안 수백명의 사망자 발생
8월	• 미국, 이란 석유·가스 및 우라늄 사업에 관여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해 제재 • 터키, 무장단체 테러로 송유관 폭발 • 북해 유전 8~9월 유지보수 돌입 • 남수단-수단 석유협상 타결 • 레바논, 시리아 수니파 반군 공격 • 이란-IAEA 간 핵협상 개최

서 서방국가들의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개입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석유시장에서는 앞으로 중동 원유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시리아 내전도 최근 심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역학관계도 복잡해지고 있어 역시 중동 원유공급 불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과 무력충돌이 격화되면서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아사드(Assad) 정권의 생화학무기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지고 서방국가들의 개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중동 내 수니파 국가들(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등)은 시아파 세력인 아사드 정권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반군을 지지하고 있으나, 이란과 레바논 등 시아파 국가들과 러시아와 중국은 아사드 정권을 옹호하고 있어 주변국들 간의 갈등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최근 시리아와 접경하고 있는 레바논이 시리아 반군에 대해 약탈과 납치 등 공격행위를 함에 따라 중동 내 종파 갈등도 불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동 정세불안 역시 최근 유가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미국 경제가 올해 들어 느리지만 점진적인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석유시장에서 유가 상승 소재로 참고되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해 9%대까지 상승했으나 올해 8% 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소비지출과 생산 활동에 있어서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최근 세계 경

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회복세가 가능했던 것은 정부의 두 차례의 양적완화 등 통화정책 외에도 고유가 지속에 따른 셰일가스 및 셰일오일 개발의 활성화가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2. 세계 석유수급 동향¹⁾

가. 세계 석유수요 동향 및 전망

국제에너지기구(IEA)는 8월 석유시장보고서(Oil Market Report)에서 2011년 세계 석유수요를 전년 대비 64만b/d 증가한 88.8백만b/d로 집계하였다. 이는 전월 보고서에서 추계한 89.1백만b/d보다 30만b/d 감소한 것으로 세계 경기둔화에 따른 영향이 예상보다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에는 88.4백만b/d로 전년 동기대비 202만b/d 증가하였으나 미국 경기침체 및 유럽 국채과다 문제로 세계 경기둔화가 본격화된 2분기부터 세계 석유수요 증가세도 크게 둔화되기 시작했다. 2분기와 3분기 석유수요는 각각 87.6백만b/d와 89.3백만b/d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4만b/d와 33만b/d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4분기에는 석유수요가 89.6백만b/d로 전년 동기보다 불과 1만b/d 증가하여 정체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경제 권역별로는 금융위기 진원지인 OECD 국가들의 석유수요가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비 OECD 국가들의 석유수요는 증가세를 지속하긴 하였

1)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Monthly Oil Market Report와 미국 EIA의 미국 석유재고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정리함.

으나 유로존 경기침체와 미국 경기회복 지연의 영향으로 산업생산이 크게 둔화되면서 석유수요 증가폭은 2010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OECD 석유수요는 전년대비 50만b/d 감소한 46.4백만b/d를 기록한데 반해 비OECD는 전년대비 114만b/d 증가한 42.4백만b/d를 나타내 대조를 이루었다. 그러나 비OECD의 석유수요 증가폭이 2010년에 210만b/d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증가폭이 100만b/d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2012년 1분기 세계 석유수요는 89.1백만b/d로 전년 동기대비 42만b/d 증가하는데 그쳐 유로존 경제위기 및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석유수요 감소 우려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이 가운데 OECD는 전년 동기대비 87만b/d 감소하여 1.8%의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비OECD는 129만b/d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2012년 2분기 세계 석유수요는 88.8백만b/d를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124만b/d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높은 석유수요 증가세가 기록된 것은 지난해 2분기부터 고유가와 세계 경제악화에 따른 석유수요 둔화가 진행된 데 따른 기저효과라고 할 수 있다.

경제 권역별로는 OECD 석유수요가 2분기에 45.5백만b/d로 전년 동기대비 20만b/d 증가했으며, 비OECD 석유수요는 전년 동기대비 105만b/d 증가한 43.3백만b/d를 기록하였다.

OECD 석유수요의 증가는 유럽연합 및 미국 석유수요의 많은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만 40만b/d 증가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석유수요가 61만

b/d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높은 석유수요 증가는 올해 5월부터 일본 정부가 모든 원자력 발전을 중지하면서 석유화력발전에 대한 비중을 높였기 때문이다.

비OECD에서는 중동의 2분기 석유수요가 25만b/d 증가하여 상당한 약진을 보인 반면, 아시아 지역의 석유수요 증가가 30만b/d로 낮아진 것이 특징적이라고 하겠다. 중동의 석유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은 고유가 장기화로 산유국들의 원유수출에 따른 재정수입이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동-북아프리카 민주화 시위의 확산을 막기 위한 중동국가들의 정부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아시아의 석유수요 둔화는 최대 신흥개도국인 중국의 2분기 석유수요가 경제성장 둔화로 전년 동기보다 2만b/d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2년 세계 석유수요는 연간 87만b/d 증가한 89.6백만b/d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3분기와 4분기에 석유수요가 각각 전년 동기대비 90만b/d와 91만b/d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유로존 경기침체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과 인도 등 신흥경제국들의 올해 경제성장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석유수요의 둔화세도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 권역별로 살펴보면 OECD 석유수요는 연간 29만b/d 감소한 46.1백만b/d를 기록하고 비OECD 석유수요는 116만b/d로 증가한 43.5백만b/d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OECD에서는 미주²⁾와 유럽지역의 석유수요가 석유소비 억제 정책과 더불어 고유가와

2)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경기부진의 영향 등으로 각각 전년대비 22만b/d와 36만b/d씩 감소할 전망이다. 미국과 OECD 유럽지역은 경제가 이미 성숙단계로 석유수요도 포화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 지속과 유로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석유수요의 감소세가 2011년에 이어 2년 연속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주지역의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2분기부터 회복세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어 3분기와 4분기에는 석유수요 감소폭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휘발유 소비가 이미 2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 제조업 경기회복과 대형 화물차량 구매 증가 등으로 인한 경유소비 증가

세도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한다.

반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석유수요는 올해에도 29만b/d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7월에 일본이 오이 원전 3호기와 4호기에 대한 가동재개에 나섰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원전 불신에 대한 여론이 높고, 정치권에서도 원전 가동에 대한 반대하는 비중이 커 연말까지 추가적인 원전 재가동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본의 석유화력발전 가동증가로 인한 석유수요 증가도 이어질 것이며, 전체 아시아·태평양 석유수요 증가세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표 3〉 세계 석유수요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b/d)

구 분	2010	2011					2012					연간 증감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2011	2012*
미주	24.1	24.2	23.7	24.0	23.8	23.9	23.4	23.7	23.9	23.8	23.7	-0.2	-0.2
유럽	14.7	14.3	14.2	14.8	14.2	14.4	13.8	13.8	14.4	14.0	14.0	-0.3	-0.4
아·태	8.1	8.6	7.4	8.0	8.6	8.1	9.1	8.0	8.1	8.5	8.4	0.0	0.3
OECD계	46.9	47.1	45.3	46.7	46.5	46.4	46.2	45.5	46.5	46.3	46.1	-0.5	-0.3
아시아	19.6	20.3	20.3	19.8	20.7	20.3	20.9	20.6	20.2	21.2	20.7	0.7	0.5
중국	8.8	9.3	9.3	9.0	9.4	9.2	9.6	9.2	9.3	9.8	9.5	0.4	0.2
중동	7.3	7.0	7.4	7.8	7.3	7.4	7.2	7.7	8.1	7.6	7.6	0.1	0.2
남미	6.0	6.0	6.2	6.4	6.3	6.2	6.2	6.3	6.5	6.4	6.4	0.2	0.2
구소련	4.2	4.2	4.4	4.6	4.6	4.4	4.5	4.6	4.8	4.8	4.6	0.3	0.2
아프리카	3.4	3.4	3.4	3.2	3.4	3.3	3.5	3.4	3.4	3.4	3.4	-0.1	0.1
유럽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7	0.0	0.0
비OECD계	41.2	41.6	42.3	42.5	43.0	42.4	42.9	43.3	43.7	44.1	43.5	1.1	1.2
전 세계	88.1	88.7	87.6	89.3	89.6	88.8	89.1	88.8	90.2	90.5	89.6	0.6	0.9

주: *는 전망치.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2012.8

비OECD 아시아의 석유수요 전년대비 46만b/d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여전히 전 세계 지역 중 가장 높은 석유수요 증가세를 보이긴 하였으나 세계 석유수요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6%로 그동안 50% 이상을 나타냈던 것과 비교해 상당히 축소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증가폭에 있어서도 2010년에 140만b/d, 2011년에 67만b/d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대폭 줄어들었다. 아시아의 석유수요 증가세가 이처럼 둔화된 것은 무엇보다 중국에 기인한다. 유럽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미국의 소비지출 둔화에 따라 중국의 산업생산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 중국의 올해 석유수요는 24만b/d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중동지역 석유수요는 올해 23만b/d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비OECD 아시아와 아·태 지역 뒤를 이었다. 고유가 지속에 따른 정부 재정수입 증가와 중동 사회불안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가 석유수요 증가세의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밖에 구소련과 남미 지역에서도 올해 각각 20만b/d와 16만b/d의 석유수요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9만b/d의 증가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나. 세계 석유공급

2011년 세계 석유공급량은 88.4백만b/d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1.2백만b/d 증가하였다. 그러나 세계 석유수

요보다는 33만b/d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세계 석유재고 감소 및 고유가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1분기에 88.4백만b/d로 동 분기 석유수요보다 30만b/d 부족한 수준을 보였으며 2분기에는 87.6백만b/d로 동 분기 석유수요와 같게 나타나 수급균형을 보였다. 3분기에는 88.4백만b/d를 기록해 동 분기 석유수요 대비 부족분의 격차가 88만b/d까지 벌어졌으며 4분기에는 89.6백만b/d로 석유수요를 14만b/d 가량 밑돌았다.

OPEC 석유공급³⁾은 2011년에 35.7백만b/d로 전년대비 104만b/d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원유생산량은 29.9백만b/d로 전년대비 64만b/d 증가했다. OPEC의 NGLs 생산은 2011년에 5.8백만b/d를 기록했으며 연간 39만b/d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원유생산에서 OPEC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전년대비 111만b/d 증산하여 회원국들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하였다. 이라크의 원유생산이 34만b/d 늘어나 사우디에 이어 많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쿠웨이트와 UAE에서는 각각 24만b/d와 19만b/d의 원유생산 증가가 기록되었다. 반면 리비아가 내전으로 인해 원유생산이 110만b/d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회원국들 중 최대 감소폭을 기록하였다. 이 밖에 앙골라가 원유생산을 9만b/d 줄였으며, 이란도 8만b/d의 원유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비OPEC 석유공급⁴⁾은 52.8백만b/d로 전년대비 14만b/d 증가하는데 그쳤다. OECD 미주지역의 석유공급이 오일샌드 및 셰일오일 생산 증대로 49만b/d 증가세를 보였으며, 비OECD 남미지역의 석유공급도

3) 원유와 NGLs로 구성됨.

4) 원유와 NGLs, 그 밖의 바이오연료와 정제증분(Processing gain)으로 구성됨.

14만b/d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구소련 지역에서 석유공급 증가가 5만b/d, 전 세계 바이오연료 공급과 정제증분도 각각 3만b/d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반해 유럽 북해지역의 원유생산은 매장지 고갈로 38만b/d나 감소했으며, 전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석유공급도 18만b/d 줄었다. 시리아와 예멘의 반정부 시위 시작으로 비OPEC 중동지역의 석유공급도 9만b/d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들어 세계 석유생산은 전반적으로 90백만 b/d를 넘어서며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분기 세계 석유공급은 90.8백만b/d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243만b/d나 증가하였다. 2분기에도 1분기와 같은 90.8백만b/d를 기록하였으나 전년 동기대비 증가는 오히려 322만b/d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올해 들어 세계 석유공급이 확대된 것은 고유가의 장기화와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고유가 지속 전망 등으로 OPEC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석유생산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이란 원유거래 제재로 이란의 원유생산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리비아의 원유생산 정상화⁵⁾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UAE 등에서 원유생산을 늘리면서 전체 OPEC 원유생산은 오히려 1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146만b/d 증가하고 2분기에는 227만b/d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PEC의 NGLs 생산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28만b/d와 41만b/d 증가하여 OPEC의 석유공급 확대에 기여하였다.

비OPEC 석유공급은 1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69만b/d 증가하였으며, 2분기에도 55만b/d 증가하여 비

〈표 4〉 세계 석유공급 동향

(단위: 백만b/d)

구 분	2010	2011					2012					연간 증감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2011	2012
OPEC	34.6	35.7	35.1	35.6	36.2	35.7	37.4	37.8	-	-	-	1.0	-
crude	29.2	29.9	29.4	29.9	30.3	29.9	31.4	31.7	-	-	-	0.6	-
NGLs	5.4	5.8	5.7	5.8	5.9	5.8	6.0	6.1	6.3	6.4	6.2	0.4	0.4
비OPEC	52.6	52.7	52.4	52.7	53.3	52.8	53.4	53.0	52.8	53.7	53.2	0.1	0.4
총공급량	87.3	88.4	87.6	88.4	89.4	88.4	90.8	90.8	-	-	-	1.2	-
Call on OPEC	30.1	30.2	29.4	30.7	30.4	30.2	29.7	29.7	31.0	30.4	30.2	0.1	0.0

주: 1) *는 전망치이며 OPEC 산유량은 생산쿼터 통제를 받기 때문에 별도로 전망하지 않음.

2) Call on OPEC은 전 세계 석유수요에서 비OPEC 공급량과 OPEC NGLs를 차감하여 산정함.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2012.8

5) 리비아는 2011년 2월 시작된 카다피 정부군과 반정부군 간 내전으로 지난해 원유생산이 대부분 중단되었으며 2011년 9월 말에 반정부군의 승리로 종료됨에 따라 같은 해 10월부터 원유생산 복구에 들어감.

교적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비OPEC의 공급증가는 전적으로 북미지역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지역의 석유생산이 미국 셰일오일과 캐나다 오일샌드 생산 확대로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29만b/d와 131만b/d 증가함에 따라 나머지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생산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비OPEC 공급을

증가세로 이끌었다. 이 밖에 남미와 구소련의 석유생산이 10만b/d 안팎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유럽의 북해지역과 아시아, 그리고 비OPEC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는 석유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해 유전은 매장지 고갈과 시설노후화로 수년 전부터 감소세가 지속되어온 가운데 올해 1분기

〈표 5〉 OPEC 석유생산 추이

(단위: 백만b/d)

구 분	2010	2011	2012			
			1/4	2/4	6월	7월
OPEC	34.64	35.65	37.41	37.81	37.59	37.72
원유생산	29.30	29.88	31.36	31.68	31.46	31.39
사우디	8.05	9.04	9.65	9.73	9.70	9.70
이란	3.70	3.62	3.37	3.14	3.00	2.90
이라크	2.36	2.67	2.69	2.92	2.91	3.02
UAE	2.31	2.50	2.61	2.65	2.66	2.68
쿠웨이트	2.03	2.24	2.42	2.45	2.46	2.46
중립지역*	0.53	0.59	0.60	0.60	0.60	0.60
카타르	0.74	0.74	0.75	0.74	0.73	0.75
앙골라	1.73	1.66	1.77	1.76	1.71	1.62
나이지리아	2.08	2.18	2.06	2.16	2.16	2.16
리비아	1.55	0.46	1.30	1.40	1.38	1.35
알제리	1.21	1.18	1.16	1.16	1.16	1.16
에콰도르	0.47	0.50	0.48	0.48	0.48	0.48
베네수엘라	2.53	2.50	2.51	2.50	2.51	2.51
NGLs	5.34	5.78	6.05	6.13	6.13	6.33
비OPEC	52.58	52.78	53.40	52.98	52.83	53.01
총 생산	87.22	88.44	90.71	90.80	90.42	90.74

주: * 중립지역 원유생산량의 50%는 사우디아라비아로, 50%는 쿠웨이트로 귀속됨.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2012.8

와 2분기에도 전년 동기대비 각각 23만b/d와 17만 b/d 감소하였다. 비OPEC 중동지역에서는 시리아와 예멘이 소요사태로 원유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37만b/d와 20만b/d씩 감소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수단과 남수단 간 송유관 사용료 분쟁으로 역시 원유생산이 1분기에 10만b/d, 2분기에 31만b/d 줄었다. 아시아 지역의 석유생산도 10만 b/d 안팎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OECD 석유재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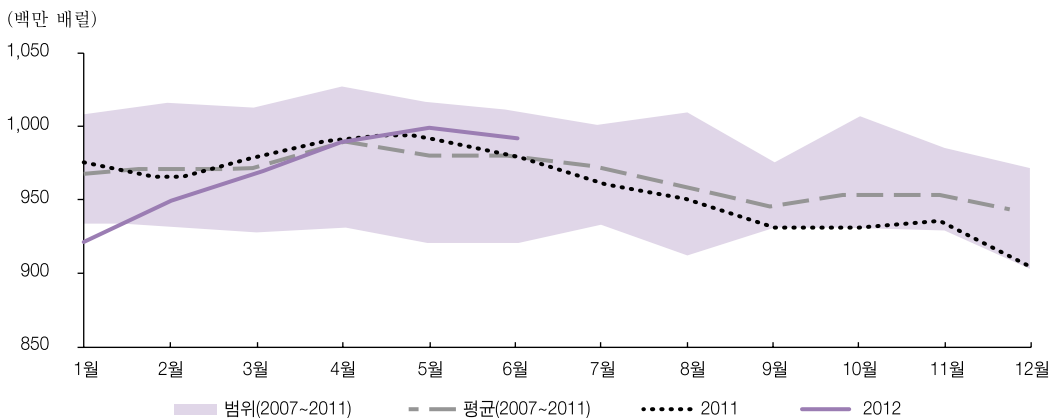
2011년 세계 석유공급 부족으로 OECD 국가들의 석유재고는 전반적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면치 못했으나, 2012년 들어 석유공급과잉 상태가 1분기와 2분기에 연이어 계속되면서 OECD 석유재고도 원유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1월까지 5년 최저치보다 낮았던 원유재고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5월 이후에는 5년 평균치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석유제품 재고의 경우에는 2월에서 4월까지 5년 평균치를 유지하다가 5월 이후에는 5년 평균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먼저 OECD 원유재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1월 921.5백만 배럴로 5년 동월 평균치(968.0백만 배럴)보다 46.5백만 배럴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지난해 1월보다는 52.2백만 배럴 이상 감소한 상태였다. 그러나 원유재고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4월에는 989.0백만 배럴로 5년 동월 평균치인 988.1백만 배럴을 상회하였다. 5월에는 997.9백만 배럴로 늘어나 5년 평균치(979.6백만 배럴)를 상회하였을 뿐 아니라 전년 동월에 기록한 992.5백만 배럴보다 5.4백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에는 991.3백만 배럴로 전월대비 6.3백만 배럴 감소하였지만 5년 평균치와 전년 동기대비 증가세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주지역의 원유재고가 올해 1월 480.1백만 배럴에서 6월 512.9백만 배럴로 32.8

[그림 2] OECD 민간 원유재고 추이



자료: I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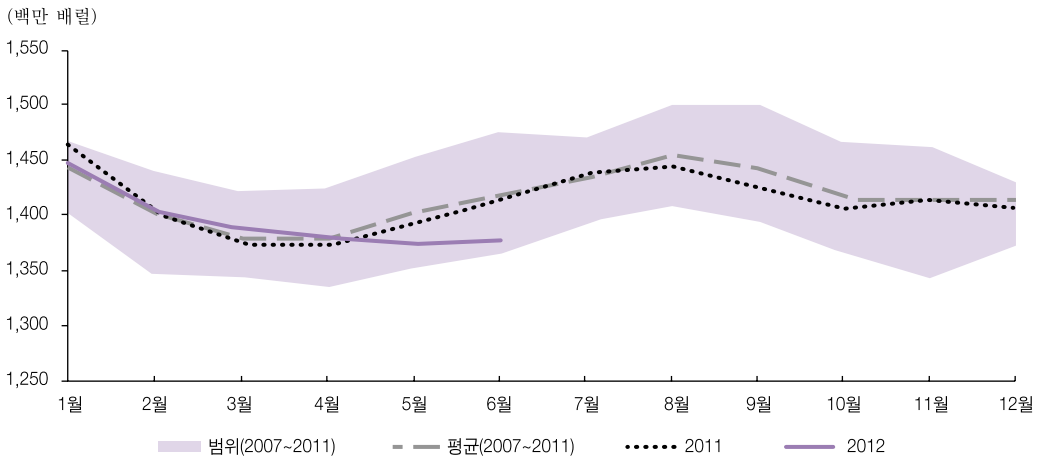
백만 배럴 증가했으며, 유럽도 올해 1월 291.2백만 배럴에서 6월 309.6백만 배럴로 18.4백만 배럴 증가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1월 154.2백만 배럴에서 6월 168.8백만 배럴로 14.6백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총 석유제품재고는 올해 1월 1,448.7백만 배럴을 기록하여 5년 동월 평균치(1,442.9백만 배럴)를 5.8백만 배럴 상회하였으나 전년 동월대비 12.2백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에는 1,406.5백만 배럴로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월보다는 2.0백만 배럴 증가한 것이며 5년 동월 평균치보다 2.8백만 배럴 높은 수준을 보였다. OECD 총 석유제품 재고는 4월까지 5년 평균치 및 전년 동월대비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나 5월부터 예년⁶⁾과 다르게 전월대비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5월에 1,373.6백만 배럴로 전년 동월대비 9.2백만 배럴 감소하고 5년 동월 평균치보다 27.7백만 배럴 하회하였다. 6월에는 1,376.1백만 배럴로 전월대비 2.5백만 배럴 가량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 및 5년 평균치와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졌으며, 오히려 5년 동월 최저치(1,363.8백만 배럴)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주지역의 석유제품 재고가 1월 698.7백만 배럴에서 6월 672.5백만 배럴로 26.2백만 배럴 감소했으며, 유럽 석유제품 재고는 1월 585.8백만 배럴에서 6월 537.6백만 배럴로 48.2백만 배럴 감소하였다. 아시아·태평양에서는 1월 164.3백만 배럴에서 6월 166.0백만 배럴로 다른 지역과 다르게 1.7백만 배럴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림 3] OECD 민간 석유제품재고 추이



자료: IEA

6) OECD 석유제품 재고는 1~4월까지 감소하다가 5~8월까지 증가세를 나타내고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이전까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3. 2012년 하반기 석유시장 전망

이란 핵문제와 시리아 사태 등의 지정학적 석유공급 불안과 유로존 경기침체에 따른 세계 석유수요 감소 우려가 벌이고 있는 줄다리기(tug of war)가 계속되고 있다.

비록 최근 국제유가가 하반기부터 뚜렷한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두 상반된 요인 간 줄다리가 팽팽하기 때문에 지금의 유가 상승세가 단기적으로 계속될 것이라 장담하기도 어렵다. 그만큼 요즘의 석유시장은 매우 불안정한 국면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최근 국제유가는 석유시장 수급상황보다는 이벤트성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다시 말하면 올해 세계 석유시장에서 공급초과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유럽연합의 유로존 지원과 지정학적 불안과 관련된 사건·사고 등에 반응하며 상승세를 유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방향을 지탱하고 있는 각각 요인들의 구체적 내용들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최근 석유시장의 불안정성을 단기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기도 어렵다. 각각의 요인들이 가지는 향후 파급효과가 방대한 영역에 걸쳐 장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유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유로존의 문제를 살펴보자. 유럽연합이 ESM(유로안정화기구) 설립을 통해 유로존과 은행들에 대한 지원에 합의하고, 유럽중앙은행이 유로존 위기국들의 금융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매입 프로그램 가동을 약속하면서 유로존 우려가 완화된 것이 최근의 그 모양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럽 경제의 펀더멘탈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고 유럽연합 내에서 합의된 재정긴축 등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형국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최근 독일이 ESM의 위헌소지를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소에 재소하고 유럽중앙은행의 국제매입 프로그램에 반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밑 빠진 독에 부어야 할 물이 대부분 독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의 디폴트 및 그에 따른 유로존 이탈 가능성도 유럽 경제의 위험 요소다. 9월에 유럽연합과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IMF(국제통화기금)로 구성된 트로이카가 그리스의 구조조정 이행여부를 실사하기로 되어 있으며, 10월 8일에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그리스의 재정 및 금융상황을 고려했을 때 유로존 탈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독일도 내심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바라고 있어 그리스의 이탈로 인한 유로존의 경제적 혼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독일은 유로존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의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디폴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스와의 경제적 연계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유로존 국가에 미치는 파급은 상이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연계성이 적은 독일입장에서는 그리스의 탈퇴로 인한 손실보다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아있음으로 해서 향후 독일이 지불해야 하는 금융비용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그리스의 탈퇴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그리스와 금융적인 연계나 부채 관계가 밀접한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은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막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아 있을 경우 그리스의 부채를 결국 유로존 전체가 장기적으로 떠 앉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리저리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있는 이상 유로존 경제가 장

기적인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세계 경기둔화의 장기화와 세계 석유수요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최근 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란 문제와 시리아 사태를 짚어보자. 지난 6월에 마지막으로 개최된 이란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및 독일(P5+1) 간 핵협상이 결렬된 이후 이란 핵협상이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 개발을 두고 양측 간 팽팽한 이견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의료용 목적을 위해 20%의 농축 우라늄 기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서방국가들은 우라늄 20% 농축 기술 확보 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90% 농축 우라늄을 개발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20%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7월과 8월에도 실무협상단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하위그룹 간 핵협상이 진행되어오긴 했으나 역시 결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이란의 핵개발을 누구보다 가장 우려하는 이스라엘이 최근 이란 핵협상의 무용론을 제기하며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공언하고 나서면서 지정학적 긴장관계가 여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근래 유가 상승세도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 우려가 석유시장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한 결과로 분석되기도 한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 가능성을 두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것은 사실이다. 이스라엘이 현재 보유한 무기나 기술로는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파괴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다. 이스라엘의 폭격기가 중간에 공중급유를 받지 않고 이란 핵시설에 접근하기가 불가능하며, 접근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보유한 구형 벙커버스터(Bunker buster)로는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파괴하기 어렵다.

또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주변 중동국가들의 반발을 고려해 미국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미국은 현재까지 군사적 공격보다는 외교적 해결을 우선하고 있다는 것이 그 두 번째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란이 원심분리기 등 우라늄 농축시설을 2배 늘리는 등 핵개발 프로그램 강화 조짐이 포착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이란 핵협상이 실패할 경우 군사적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총리와 국방장관이 지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분적으로 전시준비 징후도 관측되고 있어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이란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로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 급등으로 이란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짐에 따라, 이란의 아마디네자드(Ahmadinejad) 대통령과 종교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Khamenei)가 정치적으로 물리고 있다는 것이 향후 이란이 스스로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문제에 따른 판단과정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이란 핵문제는 올해 연말까지 국제유가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시리아 사태 역시 최근 중동 정정불안을 높이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서 지난해 리비아 내전과 같은 양상으로 발전함에 따라 주변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시리아 아사드 정부군과 반정부군 간 교전이 치열해지면서 사상자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리아가 보유한 생화학무기가 사용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내전 개입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시리아 현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이 이러한 서방국가들의 움직임을 비난

하면서 주변국들 간의 갈등도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다가 시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시아파 정권인 레바논이 수니파인 시리아 반군에 대한 테러수위를 높이면서, 중동 아랍의 고질적 문제인 수니파-시아파 간의 종파 분쟁도 자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시리아 내전을 해결하기 위해 UN과 아랍연맹 등이 중재에 나서왔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시리아 내전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변지역으로 정정불안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의 이란 핵문제와 시리아 사태는 중동 전역으로 군사적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로 최악의 상황 시 중동으로부터의 원유공급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석유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국제유가가 현재의 수급상

황과 다르게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유로존 경제문제와 중동 지정학적 문제 간의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는 만큼 향후 국제유가의 향방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석유수급 상황에 있어 공급초과 상황의 지속으로 석유재고가 쌓이고 있는 만큼,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고 시리아 내전이 종식되는 등 지정학적 불안이 해소된 다면 국제유가가 급락세로 돌아설 것이란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최악의 중동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국제유가는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란 점, 그리고 세계 경제는 더욱 깊은 불황의 늪으로 빠질 것이란 점 또한 그 동안의 역사를 통해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겠다.

〈표 6〉 주요기관별 2012년 국제유가 전망

(단위: \$/배럴)

전망 기관	기준 유종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CGES (2012.8.20)	브렌트 (Dated)	기준유가	112.2	112.1	119.7	108.8	111.7	108.1
		고유가	112.2	107.4	119.7	108.8	113.5	115.5
		저유가	112.2	111.7	119.7	108.8	111.7	106.5
EIA (2012.8.7)	WTI		94.86	93.90	102.88	93.42	89.30	90.00
CERA (2012.8.27)	두바이		106.18	105.91	116.14	106.43	104.93	96.15
	브렌트		111.27	108.32	118.48	108.28	108.67	97.83
	WTI		95.04	93.45	102.98	93.47	90.75	86.59
PIRA (2012.8.28)	브렌트		111.25	112.35	118.50	108.20	110.05	112.65
	WTI		95.05	95.90	103.00	93.45	92.50	94.65

주: CGES - 런던소재 세계에너지센터(Center for Global Energy Studies)

EIA - 미국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CERA - 미국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PIRA - 석유산업연구소(Petroleum Industry Research Associates)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년 하반기 국제 원유시황과
유가전망」, 정책연구자료, 2012.7
www.petronet.co.kr

〈외국 문헌〉

Bloomberg, “Iran’s Big Crisis: The Price of
Chicken,” 2012.8.7
_____, “Iran Loses \$133 Million a Day on
Embargo, Buoying Obama,” 2012.8.1
CGES, Monthly Oil Report, 2012.8.20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2012.8.7
IEA, Oil Market Report, 2012.8.10
Reuters, “Iran Expands Nuclear Capacity
Underground,” 2012.8.23
www.eia.doe.gov